길잡이글(예일판 편집자 존 E. 스미스 서문, 정성욱 역)

길잡이글 · 학문적 배경: 에드워즈가 참고한 저작들

『신앙감정론』 길잡이글(예일판 편집자 존 E. 스미스 서문) 4절 「학문적 배경」, 인쇄 86~114쪽

🧭 흐름 한눈에

편집자 스미스는 먼저 한 가지를 짚습니다. 『신앙감정론』은 에드워즈의 다른 책보다 다른 신학자의 긴 인용으로 가득하고, 그 인용은 대부분 각주에 있습니다. 인용된 저자는 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와, 주로 17세기 영국 청교도이자 비국교도 목사였던 16명입니다. 에드워즈는 이 저자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회심, 신실함, 참된 믿음이라는 자기 주제를 받쳐 줄 증인으로 그들을 세울 뿐입니다. 스미스는 저자를 한 사람씩 짚으면서 두 가지를 보여 줍니다. 첫째, 셰퍼드·스토다드·플레이블 같은 청교도에게 받은 빚이 그동안 과소평가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에드워즈는 그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특히 '감각'과 '지식'을 하나로 묶은 감정 이해, 그리고 표지에 따른 분별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드워즈의 '새 감각'과 '영적 지식'은 성령의 조명을 강조한 청교도 전통(십스, 오웬 등) 안에서 읽어야 제대로 이해됩니다.

🪪 표지 카드

(표지 장 아님)

📜 절별 정리

📜 1. 들어가며: 각주에 숨은 대화 상대들과 '조명'의 전통

『신앙감정론』에는 각주가 유난히 많습니다. 에드워즈는 인용한 저자와 직접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자기 논증을 지지하는 데 씁니다. 인용이 본문이 아니라 각주에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스미스는 이 저자들의 영향이 과소평가되어 왔다고 봅니다. 이전 판본들은 각주의 절반을 빼 버렸고, 아무도 인용문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인용문을 하나로 묶는 주제는 회심, 신실함,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다. 로크와 영국 경험철학의 영향은 앞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스미스가 여기서 덧붙이는 것은 덜 알려진 배경입니다. 바로 성령의 '조명' 교리, 곧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만 진리를 직접 깨달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청교도는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성령을 다시 신학의 중심으로 불러냈습니다. 이 조명 교리는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들의 중심 사상이기도 했지만, 십스, 도드리지, 플레이블, 특히 존 오웬에게 잘 드러납니다. 에드워즈의 '새 감각'과 '영적 지식'을 이해하려면 이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 인용은 논쟁용이 아니라 지지용이다
2. 그래서 인용 대부분이 각주에 있다
3. 공통 주제는 회심·신실함·참된 믿음
4. 청교도는 성령을 다시 중심에 세웠다
5. '새 감각'의 뿌리는 조명 교리에 있다

> **(이 절에는 인용 구절 없음)**
> 편집자의 개관 단락이다

📜 2. 토머스 셰퍼드 ① — 가장 큰 빛, 『열 처녀의 비유』

셰퍼드(1605~1649)는 케임브리지 임마누엘 칼리지에서 공부했습니다. 젊은 시절은 성도답지 않았는데, 존 프레스턴의 설교를 듣고 삶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1635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뉴잉글랜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회심과 신실함에 관한 그의 글은 이런 자기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전기 작가 알브로에 따르면, 『신앙감정론』의 인용문 132개 가운데 무려 75개가 셰퍼드의 것입니다. 그 대부분은 그의 사후 1660년에 출간된 『열 처녀의 비유』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일부는 어리석은 자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셰퍼드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천국이나 참된 성도의 마음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섞인 공동체입니다.

1. 인용문 132개 중 75개가 셰퍼드의 것
2. 주된 출처는 『열 처녀의 비유』
3. 열 처녀 모두 기다렸지만 일부만 준비됨
4. 보이는 교회는 참과 거짓이 섞여 있다
5. 『신앙감정론』의 문제의식과 겹친다

> **마태복음 25:1-14**
> 『열 처녀의 비유』의 본문이다. 신앙고백자 가운데 참과 거짓이 섞여 있음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
> 1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3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6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

📜 3. 토머스 셰퍼드 ② — 살아 있는 지식, 감정을 보는 눈의 차이

셰퍼드는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지식의 본질'에 있다고 봅니다. 지혜로운 처녀의 지혜는 하나님의 조명에서 옵니다. 그는 성경과 신조를 전해 듣고 아는 '역사적 지식'과, 구원에 이르는 '살아 있는 지식'을 대조합니다. 이것은 에드워즈의 영적 지식 개념과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믿음의 행위보다 본질상 앞섭니다. 이렇게 깨달은 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이도 있습니다. 셰퍼드는 마음을 '고집 센 감정을 모는 마부'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감정은 사람을 압도하는 정념(passion), 곧 사람을 휘둘러 수동적으로 만드는 격한 감정입니다. 반면

에드워즈는 '마음의 감각'이라는 말로 둘을 이어 인격을 하나로 지켜 냈습니다. 그 밖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제1부 18장은 성령이 거룩함의 원리로 성도 안에 내주하신다고 가르치는데, 스미스는 이것을 에드워즈 여덟 번째 표지의 근본 내용으로 봅니다. 『신실한 회심자』(마태복음 7:14 '좁은 문' 강론)의 서문은 감정이 감화되지 않으면 지성이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건전한 신자』는 은혜를 준비하는 세 단계를 말합니다. 지성의 인식인 '죄의 자각', 감정과 의지 안의 '찔림', 그리고 '겸비'입니다. 택함 받은 자에게는 자각에 반드시 찔림이 따른다는 점에서 에드워즈와 같습니다. 다만 에드워즈는 성령의 일하심을 '단계'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1. 들어서 아는 지식과 살아 있는 지식은 다르다
2. 셰퍼드: 감정은 지성이 몰아야 할 말
3. 에드워즈: 감정은 성향과 판단의 감각
4. 감각과 지식을 이어 인격을 하나로 봄
5. 에드워즈는 회심의 '단계' 공식을 거부

> **마태복음 25:1-14**
> 처녀들의 차이를 '조명받은 지식'의 차이로 읽는 근거다
>
> 1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 2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3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 가져갔더니 5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6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

> **마태복음 7:14**
> 『신실한 회심자』의 본문이다. 구원의 길은 좁고 소수만 어렵게 들어간다
>
>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에드워즈는 그런 이분법을 거부했기 때문에 인격의 통합성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었다."

📜 4. 솔로몬 스토다드 —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넘어선 것

스토다드(1643~1729)는 하버드를 졸업했고, 1670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노샘프턴 교회를 섬겼습니다.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어진 이 '왕조'는 에드워즈가 1750년 사임할 때까지 80년간 이어졌습니다. 신학적으로 가장 큰 영향은 셰퍼드에게서 왔지만,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스토다드였습니다. 에드워즈가 가장 분명하게 언급하는 곳은 첫째 표지와 '성령의 증거' 부분입니다. 스토다드는 젊은 시절에 성령의 증거가 특별한 경우 직접 주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후기에는 더 건전한 견해를 따라 이를 거부했고, 에드워즈는 그 후기 견해(『회심론』, 1719)를 인용합니다. 열두 번째 표지, 곧 은혜로운 감정은 그리스도인의 행위로 열매 맺는다는 표지에서는 스토다드의 설교 「신실함과 위선을 구별하는 방법」을 씁니다. 스토다드는 순종과 행실을 은혜의 중요한 표지로 보았습니다. 또 성도도 상당히 넘어질 수 있지만 순종하는 '삶의 양식'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했고, 에드워즈는 이 점을 지지 근거로 삼습니다. 에드워즈는 은혜의 작용이 자주, 규칙적으로 드러날수록 확신이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사례가 쌓일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귀납과 같은 원리입니다.

차이도 분명합니다. 스토다드는 위선은 '삶의 전 과정'에서 드러나지만 신실함은 '특정 행위'로도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에드워즈와 상당히 다른 견해인데, 에드워즈는 이 차이를 굳이 다루지 않습니다. 더 큰 차이는 분별 방식에 있습니다. 스토다드는 "은혜는 그 자체로 표지다", "은혜는 스스로 빛난다"는 식으로 표지 없이 직접 아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에드워즈는 분명한 기준, 곧 '표지'를 세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스토다드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에서는 믿음에 앞선 죄의 자각과 겸비('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를 다룹니다. 에드워즈가 여기서 특히 중요하게 쓴 점은, 정당한 은혜의 표지 상당수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확신의 근거로 잘못 붙잡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는 또 두 가지 주장을 빌립니다.

사람에게 모두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인데, 에드워즈는 이것으로 인크리스 매더를 반박합니다.

1. 스토다드: 후기에 '직통 성령 증거'를 버림
2. 열두 번째 표지에 스토다드 설교를 인용
3. 넘어져도 삶 전체의 양식은 무너지지 않음
4. 은혜의 작용이 반복될수록 확신이 커짐
5. 에드워즈는 '표지' 기준을 더 분명히 함

> **(이 절의 재료에는 성경 구절이 직접 나오지 않음)**
> 스토다드 저작 인용을 다룬 부분이다

📜 5. 존 플레이블 —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하기 어렵다

플레이블(1630~1691)은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장로교 목사입니다. 1662년 통일령 때문에 목사직을 내려놓았다가, 큰 위험을 무릅쓰고 다트머스에서 비밀리에 설교를 이어 갔습니다. 에드워즈는 그를 '거룩한 플레이블 선생님'이라 부르며 다섯 작품을 인용합니다. 『영적인 농부 생활』은 농사 경험을 영적 진리의 비유로 풀어낸 책입니다. 에드워즈는 여기서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매우 닮았다는 대목, 곧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대목을 가져옵니다. 이 인용으로 자기 기준에 따라 남의 신앙 상태를 판정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참된 신앙을 분별할 원칙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합니다. 『성만찬에 대한 묵상』에서는 '성령의 인침'이 이제는 직통 계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가져옵니다. 직접적 계시는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의 일이었고, 지금은 그쳤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의 시금석』(요한계시록 3:17-18 해설)은 참된 은혜와 위선을 구별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에드워즈는 여기서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공적인 행위가 성도를 가르는 적절한 시금석이 아니라는 점을 빌립니다. 『정신적 오류의 원인과 치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류를 시험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주장을 가져옵니다.

1. 참 신자와 거짓 신자는 겉으로 매우 닮았다

4. 평판과 공적 행위는 참된 시금석이 아니다

5. 오류를 시험하는 기준은 오직 말씀이다

> **요한계시록 3:17-18**
>
> 『신실함의 시금석』의 본문이다. 스스로 부요하다 여기지만 실은 가난한 상태, 곧 자기기만을 드러낸다
>
> 17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이 참된 신앙을 분별하는 원칙이 있다고 주장한다."

📜 6. 존 프레스턴 — 꿀맛을 봐야 단맛을 안다

프레스턴(1587~1628)은 언약 신학을 누구보다 웅변적으로 변호했고, 1626년에 임마누엘 칼리지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에 정통했다는 점에서 다른 청교도들과 구별됩니다. 그는 이성과 신앙의 연속성을 보이려 했고, 감각에서 온 앎의 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드워즈처럼 그도 꿀을 맛보기 전에는 '꿀이 달다'는 말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에드워즈는 프레스턴을 읽기 전에 이미 자기 사상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앙감정론』의 인용에는 프레스턴의 대표 사상이 거의 없어서, 영향의 정도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에드워즈가 인용한 책은 세 권입니다. 『바울의 회심에 대한 논구』(사도행전 9:6)에서는, 사람은 겸비를 겪은 뒤에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을 가져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어떤 일은 할 수 있지만,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 없이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태도』는 순종을 강조하는데, 에드워즈는 이것을 열두 번째 표지에 씁니다. 이 책이 제시한 신실함의 다섯 기준은

깊은 죄를 버리려는 의지입니다. 이 중 첫째와 셋째가 에드워즈의 표지와 특히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내적 조명으로 사람을 '설득'하셔서 스스로 굴복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책 『그리스도의 신적인 사랑에 대한 논구』는 '의지에 심긴' 감정인 사랑을 다룬 연속 설교입니다.

1. 직접 맛본 앎이 확실하다
2. 영향의 정도는 단정하기 어렵다
3. 겸비를 겪어야 참으로 순종한다
4. 신실함의 다섯 기준은 표지와 닮았다
5. 사랑은 의지에 심긴 감정이다

> **사도행전 9:6**
> 『바울의 회심』의 본문이다. 구원에 이르는 길의 출발점인 겸비와 굴복을 보여 준다
>
>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 **고린도전서 16:22**
>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로, 사랑이 신앙의 핵심 감정임을 보여 준다
>
>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 7. 존 칼빈과 윌리엄 퍼킨스 — 왜 칼빈은 적게 인용되었나

칼빈의 『기독교강요』는 몇 차례 짧게 언급될 뿐입니다. 셰퍼드, 스토다드, 플레이블은 수십 쪽씩 인용된 것과 대조됩니다. 스미스는 이유를 둘로 설명합니다. 첫째, 칼빈주의의 큰 줄기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어서 원전으로 돌아갈 필요를 덜 느꼈습니다. 둘째, 관심사가 달랐습니다. 청교도는 개인의 내면과 체험을 훨씬 더 강조했습니다. 반면 맥네일의 지적대로 칼빈은 '교의와 의식'을 중시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앙의 표지보다 말씀 선포, 성례, 치리 같은 '교회의 표지'에 집중했습니다. 이 말은 에드워즈가 교회에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1558~1602)는 케임브리지의 유능한 교수였고, 언약 신학을 가장 먼저 표현한 인물로 뉴잉글랜드에서 중요합니다. 에드워즈는 그의 책 가운데 『사람이 저주의 상태에 있는지 은총의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선언의 논구』의 일부 하나만 인용합니다. 왜 이 책을 골랐는지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 칼빈은 몇 번 짧게만 인용된다
2. 칼빈은 '교회의 표지'에 집중했다
3. 청교도는 '개인 신앙의 표지'에 집중했다
4. 퍼킨스는 언약 신학의 초기 표현자
5. 인용된 퍼킨스의 책도 '내 상태'를 묻는다

> **(이 절에는 인용 구절 없음)**
> 저자 소개 부분이다

📜 8. 존 스미스와 필립 도드리지 — 영적 감각, 그리고 넓은 독서

존 스미스(1618~1652)는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입니다. 엄밀히 말해 신학자가 아닌데도 에드워즈가 인용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신앙감정론』에서 가장 긴 인용문이 그의 『강론 선집』 제8강론, 「바리새인적 의의 덧없음과 헛됨의 발견」에서 나왔습니다. 이 강론은 마태복음 19:20-21에 근거합니다. 참된 신앙이 없는데도 있다고 잘못 믿게 만드는 네 가지를 다룹니다. 에드워즈는 이 글이 탁월하고 자기 견해를 분명히 말해 주어 통째로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스미스의 제1강론에는 신앙의 진리를 깨닫는 '영적 감각' 사상이 나옵니다. 직접적 앎에 '감각'을 포함시킨 점이 에드워즈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빛에는 감각적 요소가 없다고 본 다른 합리주의자들과는 다릅니다. 도드리지(1702~1751)는 18세기 비국교도 목사입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 입학할 수 없었고, 비국교도 신학교를 이끌다가 노샘프턴 교구의 청빙을 받아 학교를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백스터의 신학을 널리 알렸습니다. 에드워즈는 『중생에 관한 실제적 강론』에 함께 묶인 두 설교 『구원에 관한 성경적 교리』를 인용합니다.

1. 가장 긴 인용문은 존 스미스의 것

3. 거짓 신앙을 참이라 믿게 하는 네 가지
4. 직접적 앎 안에 '감각'을 넣었다
5. 도드리지는 넓은 칼빈주의 쪽 인물

> **마태복음 19:20-21**
> 계명을 다 지켰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다. 겉의 의로움으로는 참된 신앙에 이르지 못함을 보여 준다
>
> 20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 9. 에임스·오웬·십스 — 양심, 성령, 말씀과 성령의 결합

에임스(1576~1633)는 퍼킨스의 제자입니다. 『신학의 정수』와 『양심론』(영어판 『양심의 문제들』)은 뉴잉글랜드 신학자들에게 교과서처럼 읽혔습니다. 그는 신학자가 성도들의 경험을 해석해 주는 안내자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뉴잉글랜드는 주로 그의 언약 사상에 주목했지만, 에드워즈는 체험 해석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에드워즈의 인용은 신실함과 겸손의 표지를 다루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오웬(1616~1683)은 크롬웰의 자문 목사이자 옥스퍼드 부총장을 지낸 '지나치게 정통적'이라는 평을 들은 칼빈주의자입니다. 넓은 칼빈주의자 도드리지와 엄격한 오웬을 함께 인용한 것은 에드워즈의 독서가 넓었다는 증거입니다. 오웬의 『성령론』은 도덕과 신앙의 차이를 보이려 했습니다. 곧 바르게 사는 것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에드워즈가 가져온 대목은, 성령이 감정에 일하시는 일반적 사역과 참으로 영적인 사역의 차이입니다. 그는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이 감정을 '수리하고' '채운다'는 오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본질과 영혼이 자기 상태를 아는 문제를 다룬 대목입니다. 십스의 중심 사상은 말씀과 성령의 결합입니다. 동맥의 기운이 혈액에 생명을 주듯, 성령이 말씀과 함께 일하셔야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드워즈의 성령론과 아주 가깝습니다.

1. 신학은 성도의 체험을 해석하는 안내자
2. 도덕적 삶과 은혜 체험은 다르다
3. 성령의 일반 사역과 영적 사역은 다르다
4. 은혜는 감정을 고치고 채운다
5. 말씀과 성령은 함께 일한다

> **마태복음 12:20**
> 『상한 갈대』의 본문이다. 약한 믿음을 꺾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와 회심의 본질을 다룬다
>
>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성령이 없이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다."

📜 10. 게일·버제스·러더퍼드·투레틴·존스 — 짧지만 의미 있는 인용들

데오필루스 게일(1628~1678)은 모든 고대 학문이 히브리 성경에서 나왔다고 보았습니다. 에드워즈는 그의 『이방인의 법정』에서 피타고라스학파의 영적 교만을 비판한 대목을 인용합니다. 앤소니 버제스(1664년 사망)의 『원죄론』에서는 상상이 마귀의 인상과 제안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는지를 다룬 대목을 가져옵니다. 이것으로 상상은 쉽게 부패하고 유혹의 근원이 된다는 자기 주장을 받칩니다. 흥미롭게도 바로 앞에서 버제스가 '감정의 타락'을 논하는데, 에드워즈는 거기에 침묵합니다. 스미스는 그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버제스는 감정을 지성·의지와 구별되는 감각적 부분이라는 통상적 의미로 썼는데, 에드워즈의 감정 이해는 그와

비판했습니다. 열광주의와 환상을 좇는 신앙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에드워즈가 이 책을 긍정적으로 인용한 것은, 감정과 내적 신앙을 변호하면서도 열광주의와 분파주의는 지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러더퍼드가 실은 루터의 라틴어 원문을 직접 번역했습니다. 이때 러더퍼드가 빠뜨린 재귀사 sibi를 살려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듯하다”로 옮겼습니다. 자기 인식과 교만이라는 주제에서 이 '자기 자신에게'는 중요합니다. 투레틴(1623~1687)의 『논증신학강요』는 조직신학 참고서로 인용되었습니다. 제레마이어 존스(1693~1724)의 『신약 성경의 정경적 권위』는 베드로의 회개(마가복음 14:72) 해석에 인용되어 에드워즈의 성경 지식이 넓었음을 보여 줍니다.

1. 상상은 마귀의 제안을 쉽게 받는다
2. 에드워즈의 '감정'은 통상적 의미와 다르다
3. 감정은 변호하되 열광주의는 거부했다
4. 교만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가 중요하다
5. 베드로의 회개 해석에도 학자를 참고했다

> **마가복음 14:72**
> 베드로가 울며 회개한 장면이다. 존스의 해석을 빌린 대목이다
>
>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감정(affection)
마음이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며 그쪽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에드워즈에게는 성향과 판단이 함께 담긴 '마음의 감각'입니다.

사람을 압도해 끌고 다니는 격한 감정입니다. 셰퍼드와 버제스가 말한 '감정'은 이쪽에 가깝습니다.

성향(inclination)
마음이 어떤 대상 쪽으로 기울어지는 방향입니다.

조명(illumination)
성령이 마음의 눈을 열어 진리를 직접 보게 하시는 일입니다.

영적 감각·새 감각
꿀을 맛봐야 단맛을 알듯, 하나님의 일을 '맛보아' 아는 새로운 앎의 능력입니다.

역사적 지식과 살아 있는 지식
전해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보고 맛보아 내 삶에 자리 잡은 앎의 차이입니다.

죄의 자각·찔림·겸비
죄를 머리로 알아차림, 그 죄가 마음과 의지를 찌름, 그 결과 자기를 낮춤입니다.

언약 신학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언약'이라는 틀로 설명하는 신학입니다. 퍼킨스, 프레스턴, 에임스와 관련됩니다.

도덕률폐기론
은혜를 받았으니 율법과 순종은 신자와 상관없다는 주장입니다.

비국교도
영국 국교회를 따르지 않은 개신교 목회자와 신자들입니다. 인용된 저자 다수가 여기에 속합니다.

⚖️ **거짓과 참** ⌄

💬 **청년의 삶으로** ⌄

- 『신앙감정론』은 셰퍼드(인용 132개 중 75개)와 스토다드를 비롯한 청교도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 에드워즈는 이 저자들과 논쟁하지 않고, 회심·신실함·참된 믿음이라는 자기 주제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 그는 감각과 지식을 하나로 묶은 감정 이해, 그리고 분명한 '표지'에 따른 분별로 선배들을 넘어섰습니다.
- 감정과 내적 신앙을 변호하면서도 열광주의, 직통 계시, 도덕률폐기론은 거부했습니다.
- 그의 '새 감각'과 '영적 지식'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조명이라는 청교도 성령론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